



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로써 한국 기업에게 경고성 공문을 발송했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.

1. 기사 내용

- 4.23일자 한국경제의 “中, 희토류 쓴 제품 美 수출 말라 ... 韓 압박”, “한국이 동네북도 아니고 ... 中 희토류 갑질에 부글부글”, “항공우주·전기차 필수재 ... 희토류 없으면 첨단산업 치명타” 등 제하 기사에서,
 -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게 “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 군수업체에 수출하면 제재하겠다”는 경고성 공문을 발송했으며, 우리 기업 수출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

- 정부는 상기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를 중국 정부와 우리 업계를 통해 확인 중
 -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기사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음
- 정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출통제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
 - 우리 기업의 공급망 관리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출통제 당국간 소통과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음

담당 부서	무역안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성준	(044-203-4830)
		담당자	사무관	서현우	(044-203-4836)
	동북아통상과	책임자	과 장	박현종	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	구모란	(044-203-5694)
	배터리전기전자과	책임자	과 장	박재정	(044-203-4260)
		담당자	사무관	박기호	(044-203-4262)
	산업공급망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종주	(044-203-491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섭	(044-203-4913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